

# 111m 영광 칠산타워 서해안 랜드마크 부상

### 노을 등 풍광 수려 추석연휴 1만2천여명 '복적' 12월 칠산대교 개통 등 지역경제 기폭제 기대

칠산타워가 서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추석연휴 기간 동안 염산면 향화도에 들어선 칠산타워에 1만2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 같은 방문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객 수 증가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와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를 잇는 국도 77호선 칠산대교가 임시 개통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오는 12월 칠산대교가 정식 개통되면 관광객 수가 더욱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휴기간 칠산타워와 향화도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칠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울창종량한 섬과 아름다운 서해 앞바다, 붉은 저녁노을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며 "수려한 풍광 속에서 멋진 보리새우, 전어 등 풍부한 해산물은 잊지 못할 추억으

로 남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6년 준공된 높이 111m의 칠산타워는 전남지역에 세워진 전망대 중 최고 높이를 자랑한다. 타워 1~2층에는 특산물 판매장과 활선어 판매장, 향토음식점이 들어서 있고 3층에는 전망대를 갖추고 있다. 타워가 위치한 향화도항 수상물판매센터에서는 영광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보리새우와 싱싱하고 맛있는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인접한 설도 절경타운에서는 천일염으로 버무려 더욱 감칠맛 나는 곰삭은 각종 젓갈도 맛볼 수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연말께 칠산대교가 정식 개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예정인 향화도항을 속박과 오락, 체험시설이 잘 갖춰진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111m 높이의 영광 칠산타워와 국도 77호선 칠산대교가 서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염산면 향화도항에 세워진 칠산타워(오른쪽)와 칠산대교. <영광군 제공>

## 영광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숨통'

### 중소벤처부 공모 사업 선정 국비 4억2000만원 확보

영광군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하는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시장경쟁력 배양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의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오고 있다"며 "이번 국비확보를 계기로 적극적인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 신안군, 요트 관광산업 활성화 박차

### '1004섬 요트관광주식회사' 설립...해양관광 수요 대응

신안군이 요트 관광산업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22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압해읍 (주)관광선관리사무소에서 박우량 군수와 군의원, (주)푸른중공업 김봉철 대표, 관광협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4섬 요트관광주식회사' 현판식을 열었다. (사진) '1004섬 요트관광주식회사'는 급변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과 푸른중공업에서 2억원을 출자했다. 지난해 요트주식회사 설립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설립타당성 검토,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데 이어 지난 8월 최종 설립 등기를 마쳤다. 군에서는 푸른중공업과 50억원을 공동 투자해 세일 요트 65피트급 2척, 40피트급 1척을 새롭게 건조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55피트급 세일 요트 3004호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세일요트를 관광 상품화한 신안군은 압해 오도선착장에서 1일 5회 투어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100가지 맛과 향...무안 '백향과' 본격 출하

### 노화방지·면역력 향상 탁월...농가 고소득 작물 인기

무안군에서 백향과(파선프루트·사진)가 본격 수확돼 출하된다.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 운남면 이규동 씨가 지난 2016년부터 시설하우스에서 백향과를 0.3ha 규모 연 2기작으로 재배해오고 있다. 이씨는 재배 1년차 때 겪었던 경험 부족을 극복하고 3년차인 지난해 7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성공적 재배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씨는 "올해 백향과 10t 수확으로 800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다"며 "향후 인근농가에 전파하고 작목반 구성을

통해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백향과는 브라질 원산 아열대과일로 새콤달콤 등 백 가지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 백향과로 불린다. 특히 과즙 100g당 10.4g의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해준다. 엽산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비타민C, 베타카로틴, 마그네슘, 아연 등도 풍부해 노화방지와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입품은 냉동으로 들어오는 데



반해 국내산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백향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과 함께 맞춤형 현장 컨설팅으로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 무안군,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속도낸다

### 망운면 일원 34만㎡ 367억원 투입 항공정비장 등 들어서

무안군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항공특화산업단지(MRO)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무안군은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전남도에 기본 및 실시계획(안)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망운면 피서리 일원 34만 9941㎡ 부지에 들어설 항공특화산업단지는 2021년까지 367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항공 정비장과 항공물류·유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항공 첨단산업화 시설이 들어선다.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무안군의 항공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 4월에는 리투아니아 항공정비업체와 입주의향(MOA) 협약을 체결했으며, 서해해양경찰청과도 항공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무안군은 항공정비시설이 들어서면 시간적 문제와 수입 대체효과가 크고 무안공항의 자체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은 항공기 운항 안전·내수시장 확대에도 기여하고 직

## 함평군, 상·하수도 정비 564억원 예산 확보

함평군은 지역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총 56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이번 사업에는 오는 2024년까지 4개 지구에 총 564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함평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18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시설

개발사업으로, 40km에 달하는 노후 상수관망 구간을 집중 정비한다. 손불·나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는 총 사업비 104억원을 투입해 10.4km 구간의 하수관로를 정비한다.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는 각각 80억원과 6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교리 일원 우수관로 6.7km를 개선한다. 또 하수처리시설 75t을 증설하고 관로 5.5km를 보완한다. /함평=황은하 기자 hwang@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